

광주일보 독자위원회 제5차 회의

광주일보 독자위원회(위원장 문병훈) 제 5차 회의가 지난 4일 본사 14층 편집국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문병훈(지역인문기획연대 대표)·윤민지(참교육학부 모회 광주지부장)·윤영현(광주전남경영자총협회 사무국장)·김미희

(광주YWCA 소비자상담실 간사) 위원 등이 참석했다. 독자위원회 위원들은 1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6월 한 달 동안의 지면 분석을 통한 비판과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市·道 행정에 보다 강한 비판과 견제를”

‘대수도론 절대 안된다’ 기획물 인상 깊어 사건·경제기사 심층 취재해 보도 했으면

▲윤민지(이하 윤)=광주일보가 독자와 함께 신문을 만들어 가기 위해 독자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더 이상 여러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된다. 모니터링을 통해 제기된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김미희(이하 김)=6월 22일자 7면 ‘광주 극장가 7월부터 이통사 카드 할인 안돼’ 기사는 광주시의 경우 영화 관람객의 40%가 이통사 카드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고 했다. 타 지역의 경우와 비교하는 부분이 없어 아쉬웠다. 광주지역이 6개 광역시 중 영화 관람료가 가장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개 광역시의 영화 관람료 및 할인 혜택 차이 등을 함께 게재했다면 좋았을 것 같다.

6월 28일자 ‘내달부터 달라지는 건설·교통 통행료’ 기사는 7월을 앞두고 시의적절했다.

▲윤영현(이하 영)=최근 자치단체가 기업 사랑운동을 펼치고 있다. 일부에서는 대기업에게 도움이 되더라도 지역 중소기업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언론에서는 관심을 갖고 다뤄주면 한다. 심층 취재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 어떤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등을 독자에게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문병훈(이하 문)=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반영되지 않고 있다. 광주일보의 최근 보도 경향이 광주시와 전남도 행정에 관한 기사가 너무 많다. 7월 4일자의 경우 시·도지사 취임식 날이었기 때문이었지만 1면은 광

주시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내용으로, 4·5면은 ‘시·도지사 취임 선서’, ‘단체장 릴레이 인터뷰’로 시·도지사와 관련해 3개면을 할애했는데 적절하지 않았다. 가족이나 특정 당 출신 현상으로 지방의회 견제 능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언론까지 이러면 누가 지적하고 바로 잡겠는가. 내용도 비판과 논평없이 정책과 구상을 그대로 옮겨 실어 심하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학력·학벌 노골적 조장 문제

▲윤=학력·학벌을 노골적으로 조장하는 기사는 문제가 있다. 6월 21일자 7면 ‘대한민국 입법·사법부 수장은 동기동창, 광주 서중·일고 “경사났네”’기사가 대표적이다. 입법부·사법부 수장이 동기 동창이라는 이유로 “경사났네”는 식은 곤란하지 않을까.

▲김=6월 26일자 ‘위탁급식 대부분 HACCP 적용안해’라는 기사 중 HACCP는 키워드로 풀어쓴 것은 좋았는데, 설명을 너무 어렵게 했다. 나도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나가봤는데, 나조차도 어렵다는 느낌이 들었다.

반면 직업급식을 하는 학교를 취재, 기사화한 것은 좋았다.

▲윤= 날마다 지면을 채우기 위해 기사를 쓰는게 힘든 줄 알지만 심층 취재가 부족하다. 사건이 터진 뒤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전반적으로 검토해 기사화 했으면 좋겠다. 또 광주시가 하반기부터 친환경조례를 공포할 예정인데 한발 앞서 취재해 게재하는 것



광주일보 독자위원회 제 5차 회의가 4일 오전 본사 회의실에서 열렸다. 좌로부터 김미희(광주YWCA 소비자상담실 간사)·문병훈(지역인문기획연대 대표)·윤민지(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장)·윤영현(광주전남경영자총협회 사무국장)·/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이 바람직하다.

기사 제목도 문제다. 7월4일자 17면 ‘윤정의 “실컷 웃었으니 이제 웃고 싶어요”’라는 제목은 전남 연합뉴스 ‘ 많이 웃었으니 웃고 싶어’라는 제목과 거의 일치한다. 다른 뉴스도 마찬가지다. 지역 신문이라면 나름의 논조와 시각을 기사 제목에 달아야 하는데 없다.

▲김=경제·금융에 대한 신문활용교육이 필요하다. 단순한 용어 설명 수준에 그쳐서는 안되고, 충분한 배경 설명도 이뤄져야 한다.

조만간 대학생 모니터링단과 함께 대학생들이 가발만한 광주 문화지도를 만들려 하는데, 광주일보 주말판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다뤘으면 한다. 타 지역에서 온 대학생 친구들에게 소개하거나 데리고 갈 곳이 없다는 대학생들이 너무 많다.

▲영=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기업과 상품에 대한 의식 없이 생활하는 시민들이 많다. 왜 이들 기업과 상품을 써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무관심한 시민들도 있었지만 잘 모르는 시민들이 더 많은 것 같다.

왜 지역 상품을 사고 지역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지역 경제와 관련해 자세히 취재해 기사화했으면 한다. 서울 등 수도권에 법인을 두는 것과 지역 법인의 차이점 등도 분석해 알려줄 필요가 있다.

▲문=6월 27일부터 4차례 게재된 ‘비약하는 동중국 현장을 가다’ 시리즈와 6월 21일부터 3차례 실린 ‘대수도론 절대 안된다’ 기획물은 아주 인상이 깊었다. 주제와 내용 등도 돋보였다. ‘대수도론 절대 안된다’는 심층적으로 몇 회 더 게재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6월 28일자 ‘지방의원 당선자 168명 설문조사’ 기사는 기획 의도는 좋았으나 질문 내

용·경위·표본 오차 등을 인터넷과 지면에 공개해 신뢰성을 확보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특히 “단체장 견제 기능 미흡”이라는 응답이 많았다면 후속 기사로 대책을 제시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또 6월 19일자 1면 ‘3프로젝트 차질’기사는 광주·전남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였다. 후속 기사를 써 그때 그때 상황을 알려줬으면 한다.

반면 또 6월29일자 15면 ‘서유럽 5개국을 가다’의 경우 사진이나 편집은 좋은데, 내용은 조금 더 알차더라면 도움이 되었을 것 같다. 보다 충실하게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윤= 주위에서 광주일보가 갈수록 보수적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는 여론이 있다. 또 심층취재보다 단편적 기사에 매달리는 것 같다. 광주시교육청이 신실학교에 대한 감사

실시키고 있는데, 직접 어떻게 이뤄지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취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노·사 입장 균형잡힌 시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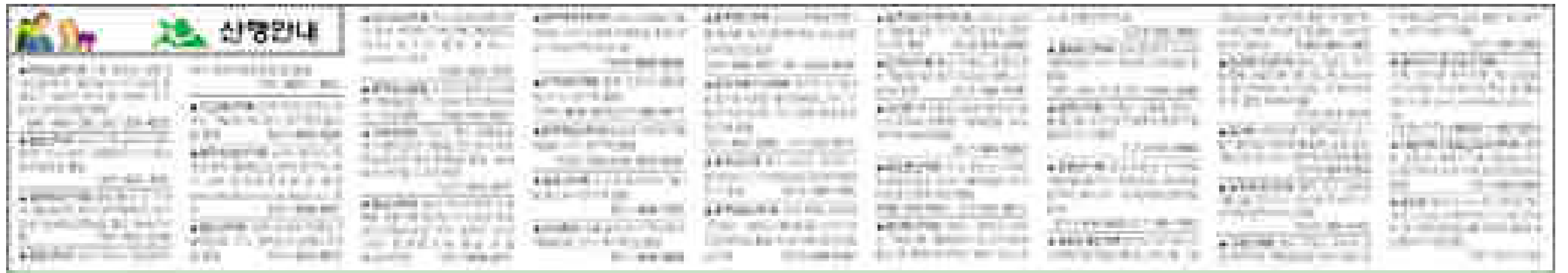
▲영=공직화 노동 현안 문제가 많다. 기아차 노조가 산별 노조로 전환했고, 하반기에도 북수 노조나 노조 전입자 문제 등이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다. 여러 업체를 찾아 다니며 노·사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기사화하고 타당성 여부, 폐해 등을 검증했으면 좋겠다.

▲문= 1면 머리 제2권선에 대해 의견이 가기도 한다. 때로는 너무 전국적 이슈를 들고 나오다가 하면 아예 화제성 박스 기사를 올리기도 한다. 6월29일자 1면 머리인 ‘아름다운 동행’기사의 경우 과연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신문 1면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내용이 나쁘다는 게 아니다. 차라리 29일 7면 ‘군수부인에게 블랙 시계’ 기사를 더 잘 읽고 싶은 것 같다.

6월24일자 1면 “우리는 대중상 심사위원”기사도 비슷하다. 과연 1면 머리 기사로 실릴 정도인지 모르겠다. 광주일보가 영향력이 있는 매체라고 생각한다면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또 여전히 자사 홍보성 기사가 실리고 있다. 6월22일자 11면 ‘대주 피오레’수도권 미래 친환경 도시’선도’기사가 실렸다. 지역 기업이 수도권에서 선전하고 있는 것을 기사화하는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양이 지면에 할애됐다. 또 스포츠면 골프 소식이 나올 때마다 할렙 다이내스티가 머리에 올라오는데, 눈에 거슬린다.

/정리=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OPEN 성인나이트클럽 30세 미만 절대 출입금지 (ROOM 도우미 대기)

7월 5,6일 맥주기본무료오픈축하쇼!

7일(금) 박강성	8일(토) 석성수	11-12일(목수) 조양조	13-14일(목금) 김수익	20-21일(목금) 박진도	25-26일(화수) 에은이
-----------	-----------	----------------	----------------	----------------	----------------

30세 미만 **한국의 권**

광주 롯데백화점 맞은편 (구)서울나이트 예약문의062)226-9333,4